

# 4월 9일 '온라인 개학'... 수능 2주 연기

### 교육부 "초·중·고 2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별 상황·학교 여건따라 출석수업도 병행 수능 12월 3일 시행... 대입준비 혼란 불가피

코로나19 여파에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됐다. 제주도내 초중고생도 등교 없이 새 학기를 맞는다. 수능 시험도 기존보다 2주 미뤄진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갑작스런 교육 현장 변화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예정했던 4월 6일보다 개학일을 3일 더 늦췄지만 준비를 거쳐 온라인을 통한 학사 일정을 시작하

겠다는 것이다.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고심하던 교육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현시점에서 등교 개학은 어렵지만 개학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학교 휴업일을 1~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수업의 병행을 포함한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온라인 개학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9일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일주일 뒤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온라인 개학으로 신학기를 맞는다. 초등학교 1~3학년은 같은 달 20일 맨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에 들어간다. 단, 유치원은 등원이 가능해질 때까지 개학을 미루고 어린이집 개원도 무기한 연기된다.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에선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형식은 교사가 화상으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과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 과제 제시형으로 크게 세 가지다. 학교는 이를 기준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고 개학 이후 2일간 온라인 개학식,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한다. 개학 초기 적응기간도 수업 일수에 포함되며, 온라인 개학 중에는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을 받는 게 어려운 장애 학생을 위해 방문교육 등을 검토해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다만 지역별 감염증 상황과 학교 여건에 따라 출석 수업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과 출석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됐다.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16일 늦춰진 9월 16일로 바뀐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23~29일, 정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12월 14일, 정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7~11일로 변경됐다.

유 장관은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불충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원격 수업과 온·오프 미래형 수업 구현 등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정부,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결정 학부모는 '걱정'- 학교는 '막막'

### 실시간 쌍방향 준비 미비 출석 인정 등 지침도 없어

정부가 오는 4월 9일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도내 학교 현장엔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되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교 여건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온라인 개학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후속책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개학이 발등의 불이 되자 제주 시내 A고등학교 부장 교사는 "막막하다"고 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할 수 있는 '쌍방향' 원격 수업 시스템이 학교에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이 교사는 "우선 주간 시간표를 정한 뒤 실시간으로 수업할지 콘텐츠 제공이나 과제 중심으로 진행할지 내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그 노력에 비해 효과와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내 또 다른 고등학교 B교사도 "준비가 될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온라인 개학)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걱정이 크다"며 "학교의 시설적 측면과 교사의 준비 정도, 학생의 수용 여부 등에서 온라인 개학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온라인 개학에 대한 막막함이 큰 것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B교사는 "현재까진 뉴스를 통해 들은 게 전부"라며 "출석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악과 등 예체능 학과를 둔 학교에선 맞춤 지도 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음악과가 있는 함덕고 관계자는 "학생이 집에서 악기를 연습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를 교사가 확인해 피드백하는 방식을 시도했었다"며 "하지만 홈페이지 서버 용량이 적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할 방안을 찾는 등 과목마다 다른 수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혼란 만큼이나 가정에서의 걱정도 크다. 컴퓨터나 태블릿 등 스마트기가 없는 학생은 집에서 수업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정에서의 지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수업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30일 제주도교육청이 개최한 실시간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준비 온라인 공감 회의'에서도 집중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표에 맞춰 교육청 내부에서도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라인 개학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송강호 박사 석방하라"

강정평화네트워크는 31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송강호 박사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 박사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내부로 들어갔던 평화활동가 류복희씨를 비롯해 평화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류씨는 "구립방 방문 요구에도 해군은 이를 무시했다. 부대안으로 들어갈 당시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했고 조사도 성실히 받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제주광어 드라이브 스루 특별판매** 제주도와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광어 소비 촉진을 위해 31일 제주시 한라도서관 주차장에서 '제주광어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음파발신장치 이용 돌고래 접근회피 실험

#### 어제 대정 무릉리 해안

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시민모임인 핫핑크돌핀스는 31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음파발신장치 이용 돌고래 접근 회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릉어촌계 소속 해녀 11명은 돌고래 회피용 음파발신 장치인 '핑어'를 망사리에 부착한 뒤 오전 10시5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무릉리 앞바다에서 물질을 이어갔다. 핫핑크돌핀스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동안 돌고래 무리 출현 여부,

무리의 크기, 해녀 접근 여부, 접근 거리, 핑어 접근 여부, 돌고래 행동 패턴 등을 확인하며 핑어의 효과를 관찰했다. 그러나 이날 인근 해역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관찰되지 않아 음파발신장치의 정확한 효과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앞으로 10여차례 실험을 통해 음파발신장치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도내 4개 대학 비대면수업 연장

#### 제주대, 등교 4월 13일 예정

제주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3월 16일 개강 이후 시행해온 비대면 수업 일정을 일제히 연장했다.

제주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강의 기간을 당초 3월 16~4월 4일에서 4월 11일까지로 늘렸다. 종강은 6월 26일 이후 예정이다.

3월 29일까지 재택수업(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제주국제대도 그 기간을 4월 12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강의실 집합수업은 4월 13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한라대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을 통해 개강 후 2주간으로 계획했던 온라인 수업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제주한라대는 별도 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되면 바로 대면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관광대는 재학생 설문 조사 결과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권고에 따라 비대면수업을 4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대면(등교) 수업은 4월 13일부터 실시한다. 진선희기자

하나되는 국민소방, 함께하는 국민안전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여  
자세는 낮추고  
서비스는 더욱 높겠습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부희성·문경순

제주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현상호  
서귀포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성기영  
서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양지수  
동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영봉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해 변함없이 제주도민 곁에 있습니다. ”